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❻ 서남산 코스(삼릉~용장골) 〈2〉

▶한줄 요약
경주 남산에는 절터 149곳, 불상이 129상이 확인된다. 하지만 절터 대다수는 폐허이고, 불상의 대부분도 불두가 훼손됐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경주 남산 사찰과 불상을 파괴하고 묘소를 썼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 불상은 누가 훼손했을까?

배동 삼존불상을 참배하고 길을 돌려 서남산길로 다시 나오면 조금 위에 삼릉이 오른쪽에 나타난다. 경주 남산의 소나무를 대표하는 구부러지고 멋스러운 철갑을 두른 소나무 숲에 삼릉이 있다. 삼릉은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것이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수한 신라왕릉 중 주인이 밝혀진 왕릉은 8기밖에 없다. 그렇기에 삼릉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내가 경주에서 제일로 뽑는 왕릉은 진평왕릉과 헌덕왕릉이다. 소박하고 고즈넉하면서 멋스러운 소나무에 둘러싸인 왕릉이다. 차 또는 커피와 돗자리만 있으면 눕거나 앉아 왕릉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포근히 안길 수 있어 좋아한다. 서남산의 삼릉은 소박함과 고즈넉함 그리고 멋스러운 소나무를 다 갖추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쇠로 만든 울타리의 둘레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진이나 눈으로 담거나 보기에 풍경이 기가 막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섭섭함이라고 할까 서운함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왕릉이다. 그러고 보니 경주 왕릉에서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고 쇠로 된 울타리가 쳐진 왕릉이 또 있나 싶다. 앉아서 쉬고 싶지만 뭔가 그런 마음을 내기에 쉽지만은 않은 삼릉이다.

삼릉을 지나서 10분 정도 산을 좀 오르면 바위 위에 불두와 양손이 사라진 불상이 얹어져 있다. 불상이 있는 자리는 이제는 절의 이름도 추억도 사라진 '삼릉계 제2사지'라고 이름 붙여진 절터였다. 1964년 근처 계곡에서 불상이 발견되어 지금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 불상은 왼쪽 어깨의 가사 매듭이 특별하다. 가사를 묶고 매듭을 지어 왼쪽 무릎에 늘어뜨려 놓았는데 술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런 가사를 끈과 매듭으로 결합한 모습은 남산의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에서도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다. 또한 불상의 중앙에 보이는 속옷인 '승기지'에도 매듭이 보인다. 가사와 속옷을 매듭으로 묶는 것은 지금의 한국불교계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매듭과 술을 재현하면 멋져 보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상은 대좌와 하나의 돌로 조성되어 있다. 대다수 불상은 불신과 대좌를 따로 조성하는데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좌는 아예 다 파괴되어 있다. 큰 바위 자체를, 그래서 남산 자체를 대좌로 한 불상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그랬다면 남산을 기단으로 한 용장사지 삼층석탑과 늠비봉 오층석탑처럼 상식의 틀을 넘어선 남산을 대좌로 삼은 멋들어진 불상이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다.



경주 남산 용장곡 석조여래좌상. 가사 소매들의 표현이 매우 섬세한 불상이지만, 불두와 수인이 훼손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경주 남산 불상들의 불두들이 훼손된 것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산에 묘소로 조성하며 인근 절과 불상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불상은 대다수가 파괴되어 불두가 없는 경우가 많다. 탑들 또한 파괴되어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2015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의 사지〉의 경주 남산에 관한 자료에서 절터는 149곳이 확인된다. 그리고 석탑은 99개, 마애불상은 73상, 불상은 129상이 확인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149곳 대다수 절터는 모두 폐허이며 알아보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남산의 불교 유적의 폐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도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남산에 관한 조사 자료와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이미 남산은 폐허의 상태였다. 불상은 모두 파괴되고 넘어져서 흩어져 있었으며 불두는 거의 모두 깨져 있었다. 남산의 석탑들 또한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었다. 조선에 발을 들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눈을 통해서도 경주 남산의 처참한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다.

경주 남산 불상과 불탑의 파괴가 도굴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은 불두가 사라지고 몸만 남은 불상이 많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불상의 경우 불두에 부장물인 보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도굴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상황에서 횡행한 현상이었다. 조선시대 불교 유적과 관련된 도굴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도굴을 위해 경주 남산의 불상과 불탑을 파괴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 경주 남산의 불상과 불탑은 파괴되어 있었다. 경주 남산의 불상 불두가 대다수 깨지고 잘린 것은 도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도굴을 위해 불두를 자르고 멀리 버려 지금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혹시나 도굴의 과정에서 석불이 넘어져서 깨진 것이라 해도 많은 경주 남산의 불상 불두가 사라졌거나 계곡에 나뒹굴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도굴로 불상이 넘어진다고 불상의 불두가 깨져 사라질 리는 없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이전 남산의 불상과 불탑이 파괴되어 있었다는 점은 도굴에 의한 파괴가 아닌 점을 알려준다.

일제의 도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리건판 사진보면 이미 훼손돼
경주 남산, 양반들 묘소로 활용
조선시대 家廟 조성하며 절 파괴
남산 불상들도 같은 이유로 훼손

경주국립박물관 야외 전시 석조 유물 중에는 불두가 없는 불상이 쭉 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965년 분황사에서 발견된 석불이 20여 점이 있다. 분황사 뒷담 북쪽 30m 즈음에 있는 우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토지의 주인이 논에 대는 물이 한곳에 고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땅을 팠더니 괴석이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옛 문화재관리국에서 지하에 고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땅을 파 내려갔다. 그랬더니 40m 지점에서 석불이 출토되었는데 2m 정도 깊이로 석불이 계속 발견되었다. 옆을 보니 우물의 벽선이 확인되어 우물가에 던져진 석불로 판단됐다. 불상이 발견된 지점은 신라시대 분황사의 금당이나 강당의 부근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발견된 불상들은 모두 불두가 잘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불상 등 석조 유물은 석조여래좌상이 13구, 석조보살입상이 1구, 불두가 5점, 광배편이 1점, 그 외 불상이 6구이다. 조선시대 어느 때 분황사 주위에 있던 불상을 파괴하고 우물에 묻은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물가에 버렸을까? 누군가는 파괴된 불상을 스님들이 우물가에 숨겨놓은 것이라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경주의 야외에 있던 석조불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경주 남산의 석조불상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고 불두가 깨져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경주 남산의 불상과 석탑은 파괴된 것일까? 이유는 경주 남산 절터에 조성된 묘지에서 찾을 수 있다. 남산의 석탑이 있던 자리나 불상이 있던 자리에는 석탑과 불상이 파괴되고 묘지가 있었다. 남산의 등산로에는 경주 남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에 묘지의 이장을 권하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주 남산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묘지가 남아있다. 특히나 절터에는 묘지가 있거나 있었던 흔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들은 불태워져 폐사되고 있다. 이러한 억불의 정책 속에 조선 말기가 되면 전국에 폐사지가 산재하게 되었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폐사지에는 석조로 된 불상과 불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말기가 되면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양반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금당과 불탑 자리에 모시는 유행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순조실록〉에 보이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양반의 양주 회암사의 부도와 비석의 파괴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절터에 묘지를 쓰는 유행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꼽는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지를 쓰기 위한 예산 가야사의 파괴가 있다. 그러나 왕위에 등극한 고종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본다면 절터를 파괴하고 석불과 석탑을 파괴한 인과응보의 무서움 또한 확인될 것인데 양반들의 이러한 파괴적 행동이 안타까울 뿐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